

미국인들의 휴가철 읽을거리

「뉴욕타임즈 북리뷰」가 선정한 휴가철 권장도서

산과 바다가 우리를 유혹하는 여름이다. 때 맞춰 대부분의 독자들은 휴가여행을 떠나리라. 그건 내외를 막론하고 다 같다. 그러나 올해는 '책의 해'. 육신의 휴가만이 아니라 정신의 휴가마저 도모하려 한다면 그간 읽지 못했던 책 한권쯤은 옆에 차고 떠날 일이다. 이번 호에는 「뉴욕타임즈 북리뷰」가 선정한 미국인들의 휴가계획에 맞춘 읽을 거리를 소개한다.

예술, 음악 또는 대중문화

「축복의 예술」(“THE ART OF CELEBRATION: Twentieth-Century Painting, Literature, Sculpture, Photography, and Jazz”, Knopf Press.) 알프레드 아펠(Alfred Appel Jr.) 지음: 엘리엇 카프카를 위시하여 마티스, 채플린, 테디 윌슨 그리고 생애를 예술에 몸바친 현대 예술가들에 대한 가벼운 터치의 읽을 거리.

「로버트 머더웰 선집」(“THE COLLECTED WRITINGS OF ROBERT MOTHERWELL”, Oxford University.) 스테파니 테렌찌오(Stephanie Terenzio) 펴냄: 뉴욕 화단의 가장 탁월한 멤버였던 로버트 머더웰의 에세이, 비평 및 선언문을 모았다. 이 속에서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야망과 에토스가 잘 드러난다.

「코넬 카파: 사진집」(“CORNELL CAPA: Photographs”, Bulfinch/Little, Brown.) 코넬 카파와 리처드 웰란 펴냄: 사진계의 명사 카파씨의 사진철학, “인간, 그들의 삶과 공간, 생활모습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낸 사진명작 모음.

「바이마르 시대, 한나 회흐 사진 몽타주」(“CUT WITH THE KITCHEN KNIFE: The Weimar Photomontages of Hannah Höch, Yale University.) 마우드 래빈(Maud Lavin) 지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새로운 여성의 상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삶에 대한 전기적 서술.

「춤」(“DANCING: The Pleasure Power, and Art of Movement”, WNET Press.) 제랄드 조

나스(Gerald Jonas) 지음: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방영된 적이 있던 전세계 춤들의 비교문화사적 집성.

「미국의 발견」(“THE DISCOVERY OF AMERICA, Knopf.”) 솔 스타인버그(Saul Steinberg) 지음: 1942년 미국땅에 발을 들여 놓은 한 지성적인 예술가가 14년간 관찰했던 미국 단상을 환권으로 묶은 책.

「디자인, 형태 그리고 카오스」(“DESIGN, FORM, AND CHAOS”, Yale University.) 폴랜드(Paul Land) 지음: 「출판저널」 128호를 통해 소개됐던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랜드의 작품세계와 디자인 철학.

「마그리트」(“MAGRITTE: The Silence of the World”, Menil Foundation.) 데이비드 실베스터(David Sylvester) 지음: 모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유명한 미술가, 마그리트의 생애와 예술을 도판과 함께 세밀한 필치로 그려낸 미술 전기물의 범전.

전기물

「질주」(“ALWAYS RUNNING, La Vida Loca: Gang Days in L.A.”, Curbstone Press) 루이스 로드리게스(Luis J. Rodriguez) 지음: 1960년대 로스엔젤스 동부 지역과 샌 가브리엘 밸리를 장악했던 갱들과 삶을 같이했던 한 시인의 무시무시하고 솔직한 증언록.

「앤소니 트롤롭」(“ANTHONY TROLOPE”, Knopf Press.) 빅토리아 그렌디닝(Victoria Glendinning) 지음: 트롤롭의 작품들에 대한 차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빅토리아 朝의 시대 상황을 새롭게 조명한 빼어난 전기물.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A Life”, Indiana University) 조셉 브렌트(Joseph Brent) 지음: 한 위대한 미국 사상가의 지적 세계와 더불어 그의 불행한 삶을 함께 그려낸 전기물.

「에리카 종의 헨리 밀러 회상」(“THE DEVIL AT LARGE: Erica Jong on Henry Miller”, Turtle Bay Press.) 에리카 종 지음: 전

기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회고록이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상록. 82살 먹은 노작가와 새파란 신출내기 작가 사이에 오고간 문학적 교우록이다. 「출판저널」 124호에 소개됐던 책.

「디드로 평전」(“DIDROT: A Critical Biography”, Knopf Press.) 퍼뱅크(P.N. Furbank) 지음: 20년전 디드로 전기의 표준을 세웠던 아더 윌슨에 이은 디드로 전기. 인본주의와 근대적 사상가로서의 디드로를 부각시킨 책이다.

「꿈의 제작자, 꿈의 파괴자」(“DREAM MAKERS, DREAM BREAKERS: The World of Justice Thurgood Marshall”, Little, Brown.) 칼 로완(Carl Rowan) 지음: 올해 84세의 일기로 삶을 마친 흑인 대법원 판사 더군 마샬에 대한 전기. 「출판저널」 123호에 소개한 책.

「총통의 여자」(“IL DUCE'S OTHER WOMAN”, Morrow Press.) 필립 카니스트라로(Philip V. Cannistraro)와 브라이언 설리반(Brian R. Sullivan) 공저: 부유하고 아름다운 유대계 여성 마그리타 사파티가 19년간 무솔리니와 나눈 술한 편지를 바탕으로 파쇼정치를 접근한 신선한 저술. 새롭게 발굴된 1차자료의 가치가 돋보이는 책. 「출판저널」 128호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기업경영, 경제

「머독」(“MURDOCH”, Simon & Schuster.) 윌리엄 쇼크로스(William Shawcross) 지음: 세계적 언론그룹의 성체를 쌓은 루퍼드 머독의 찬연한 삶을 그린 책. 그간 머독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斜視적 접근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윤리에 충실한 ‘선한’ 자본가로서의 머독이 부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 Harper Collins Press.)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지음: 자본주의 시대에서 지식사회 시대(Age of the Knowledge Society)로의 전변, 또는 대국가의 멸망으로부

터 유기적 조직체의 등장을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하며 쓴 ‘슈퍼스타’ 교수, 드러커의 저작.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 The Epic Battle for the Johnson & Johnson Fortune”, Morrow Press.) 데이비드 마골리크(David Margolick) 지음: 「타임즈」紙 기자 마골리크가 세밀하게 호버 판, 미망인과 자손들간에 4억달러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추악한 법정싸움 이야기. 「출판저널」 127호를 통해 소개되었던 책.

역사물

「발칸의 혼」(“BALKAN GHOSTS: A Journey Through History”, St. Martin's Press.)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 지음: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그리고 옛 유고슬라비아를 만들었던 역사적인 英雄과 惡漢 列傳.

「하이젠베르크의 전쟁」(“HEISENBERG'S WAR: The Secret History of the German Bomb”, Knopf.) 토마스 파워스(Thomas Powers) 지음: 노벨상에 빛나는 핵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나치 정부의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첩보전쟁을 벌였던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 책.

「뉴우 딜러」(“THE NEW DEALERS: Power Brokers in the Age of Roosevelt”, Knopf.) 조단 슈바르츠(Jordan Schwartz) 지음: 뉴우딜 정책을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저자는 뉴우딜이 국가 자본주의 정책의 전범으로서 미국내 저발전 지역이던 서부와 남부지역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의식의 탄생」(“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 to Eighteen-seventy”, Oxford University.) 거다 러너(Gerda Lerner) 지음: 어떻게 여성이 역사의 무대로부터 사라져버렸는지, 그리고 대양 “영원한 현재속에 표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중세로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개관한 역사.

「대학살로 가는 길」(“THE PATH TO GENOCIDE : Essays of Launching the Final Solution”, Cambridge University.)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R. Browning) 지음 : 어떻게 나찌 독일이 수백만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죽이기 위해 산업화된 살인 장치조차 구상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한 신뢰할 만한 책.

소설류

「아크 D의 X」(“ARC DX”, Poseidon Press.) 스티브 에릭슨(Steve Erickson) 지음 : 황폐(Desolate) 街를 중심으로 한편은 제퍼슨 시대의 미국, 또 한편은 현대의 미국을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진지하고 환상적인 소설.

「아 유 마인?」(“ARE YOU MINE?”, Grove Press.) 애비 프루트(Abby Frucht) 지음 :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그 결과 발생한 낙태. 요즘 미국사회의 정치적 쟁점이기도 한 낙태의 문제를 삶의 견지에서 뽑아본 프루트 여사의 세번째 역작.

「호의」(“THE BEST INTENTION”, Arcade Press.) 잉마르 버그만(Ingmar Bergman) 지음 :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 영화감독 잉마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것이라고 언명했던 책. 그거야 어쨌든 풍성한 느낌과 함께 황량한 느낌도 동시에 주는 사실적 구성의 소설.

「뼈」(“BONE”, Hyperion Press.) 파에 미엔(Fae Myenne Ng) 지음 :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 차이나타운을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미국사회에의 '동화'를 거부하게 되어 있는, 중국계 미국인의 긴장된 심리상태를 묘사한 작품.

「깃발 없는 소년」(“THE BOY WITHOUT A FLAG : Tales of the South Bronx”, Milkweed Editions.) 에브러햄 로드리게즈(Abraham Rodriguez Jr.) 지음 : 인간의 야만성은 교양을 통해 교정될 수 있다는 다소 진부한 주제이지만, 사실적 사건 전개가 감동을 주는 작가

의 데뷔 작품.

「맥개헌 소설선집」(“THE COLLECTED STORIES”, Knopf.) 존 맥개헌(John McGahern) 지음 : 깔끔하고 힘찬 묘사에 뛰어난 작가의 대표적 단편집. 전편에 걸쳐 범신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이란 목적이 아니라 세계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버팔로 솔져」(“BUFFALO SOLDIERS”, Knopf.) 로버트 오코너(Robert O'Connor) 지음 : 독자들로 하여금 도덕에 불감증에 걸린, 자기도취적이면서도 명민한 니힐리스트 軍文官과 공감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오코너의 데뷔작품.

「짜르의 狂人」(“THE CZAR'S MADMAN”, Pantheon.) 잔 크로스(Jaan Kross) 지음 : 지난 1978년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출판되었다가 근래 핀란드 시인 안셀름 홀로에 의해 영역된 익살스럽고 농익은 소설. 한 농부의 자식에 의한 일기체 소설이다.

「아인슈타인의 꿈」(“EINSTEIN'S DREAMS”, Pantheon.) 알란 라이트만(Alan Lightman) 지음 :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던 26살 젊은 시절, 그가 꿈꾸었음직한 것들을 소설화시킨 詩의 판타지야.

「사랑을 위하여」(“FOR LOVE”, Harper collins Press) 슈 밀러(Sue Miller) 지음 : 산뜻하고 깔끔한 사실적 기법이 돋보이는 정직한 소설. 40살이 넘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사기」(“FRAUD”, Random House.) 아니타 브루크너(Anita Brookner) 지음 : 나이 드신 부모님과 머리가 커진 자식들 사이에 내재된 관계를 폭로한 소설. 작가는 이 속에서 “사랑이 파괴적이 될 때는 언제인가”를 되풀이하여 질문하고 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35년이 흐를 것입니다.

1985년 4월 출판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아래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형 출판 유통기구로서 한국출판협동조합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푸른 이념의 빛이 바래지는 않았으나, 그 나무가 바람대로 자라나고, 다음 세대의 출판을 위하여 서늘한 그늘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요. 앞선 35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35년은 흘러 갈 것입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공급이 있습니다.**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 경연사 • 과학과 예술 • 광문각 • 국동문화 • 기다리 • 대웅출판사 • 대훈사 • 보문당 • 보성사
- 법률신문사 • 사회문화연구소 • 서광사 • 성균관 • 성음각 • 양문각 • 엘멘출판 • 열화당 • 오덕원
- 요기선 • 유림문화사 • 음악예술사 • 이론과 실천 • 전통문화연구회 • 전파과학사 • 정문출판사
- 중원문화 • 증권서적(출판부) • 창조사 • 태성출판사 • 하남출판사 •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한국 어학
- 개발원 • 한국외대(출판부) • 향학사 • 현대미학사 • 현상과 인식 • 흥문관 • 화평사 • 한겨레
- 신문(출판국) • 한국문화사 • 한림원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 공급위원회

연락처 : <공급부> 전화 716 · 5616 ~ 9 팩스 716 · 2995, 716 · 2999
<총무부> 전화 716 · 5621 ~ 3